



남원시,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워크숍 개최

남원시는 17일 시장실에서 시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이하 참여단) 워크숍 및 워크숍을 실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참여단에 새롭게 합류하는 30명에게 워크숍을 수여하고 참여단의 여성친화적 인식개선을 위한 전북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조경숙 박사의 '여성친화도시 이해와 시민참여단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교육을 진행했다. 참여단의 임기는 2년으로 △인전 △돌봄 △일자리 등 3개 분야로 나누어 활동하게 되며, 인전분야는 안전한 지역 환경 조성 및 시민 불편 사항 해소를 위한 모니터링, 돌봄과 일자리 분야는 일·가정양립지원을 위한 보육환경 조성 및 여성의 취·창업 활성화 및 고용안정을 위한 정책 제안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차미화 여성가족과장은 "시민이 행복한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행정에서 관찰되지 못한 부분들을 시민참여단이 시민들의 입장에서 다양한 의견을 제안해 줄 것"을 당부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하태현 우석대 명예교수, 재난대비 평가단 위촉

우석대학교 하태현(소방방재학과) 명예교수가 행정안전부의 2023년 재난 대비 훈련 중앙평가단 임원으로 위촉됐다고 전했다. 지난 2016년부터 중앙평가단 임원으로 활동해 온 하태현 명예교수는 2025년 2월까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실시하는 재난대비 훈련에 관한 감독·상황점검·교육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하태현 명예교수는 "중앙평가단의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국가재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을 적극 알리고, 우리나라가 재난으로부터 더욱 더 안전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대, 장광기 전국태권도대회 여성부 종합 3위

전주대학교 경기지도학과 태권도 전공 겨루기 선수단은 '제22회 여성가족부장관기 전국태권도대회'에 참가해 여성대학부 종합 3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 대회는 한국여성태권도연맹에서 주최하고 한국여성태권도연맹과 강원도태권도협회에서 주관 15~23일 9일간 강원도 춘천종합체육관에서 진행되고 있다. 개인별 수상자로는 -49kg급 금가연(4년) 선수가 1위를, -46kg급 홍지민(2년) 선수가 2위를, -73kg급 정수진(3년) 선수와 -63kg급 김주연(1년) 선수가 각각 3위를 차지했다. 최광근 교수는 "전주대학교 선수단의 꾸준한 노력으로 이룩한 성과에 자부심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대학의 명예를 높이고 학교와 지역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인재 양성에 더욱 힘쓰겠다"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완산소방서, '불나면 대피 먼저' 집중 홍보

전주완산소방서(서장 김장수)는 주택·요양병원의 피난 취약시설과 임야 등에 대한 선제적 화재 예방의 일환으로 '불나면 대피 먼저'를 집중 홍보한다고 17일 밝혔다. 전주완산소방서에 따르면 전라북도 2023년 기준 화재로 인한 사망자는 총 11명으로 주택 사망자는 7명(64%)로 나타났다. 대부분 대피하지 않고 무리한 자체 진화 과정에서 타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화재 시 대피법으로는 △대피 시 현관문 등 방화문을 닫아 불길 차단 △계단을 통해 지상(피난 공간)으로 대피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낮은 자세로 육상 △외부로 대피 △안전한 곳으로 대피 후 119 신고하기 △불길로 대피가 어려울 시 119 신고 및 완강기 등 피난기구 이용하기 등이다. 소방서는 시민의 화재 안전 강화를 위해 △소방안전교육 △SNS 및 홈페이지 홍보 △대형 전광판 영상송출 △불나면 대피 먼저, 대국민 참여 이벤트 등을 진행해 7월까지 집중 홍보한다는 방침이다. 김장수 전주완산소방서장은 "화재가 발생하면 안전하게 대피해 인명피해를 없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다"며 "불나면 대피 먼저 슬로건을 꼭 기억해 실천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영태 기자

“어르신들 행복한 여가 보낼 수 있도록”

전북대, 전주시 노인회와 '맞선'... 꽃밭 가꾸기 등 공동 운영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는 17일 농생대 본관에서 대한노인회 전주시지회(회장 전영배·이하 전주시 노인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백승우 농생대 학장과 전영배 전주시 노인회장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식 협약식이 진행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프로그램 연구와 개발에 협력하고,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활동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특히 전북대는 노인 심신 건강을 위한 캠퍼스 내 힐링 프로그램 참여를 지원하고, 지역사회 꽃밭 가꾸기 등을 공동 운영하기로 했다. 백승우 학장은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우수한 인프라를 적극 활용해 노인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고, 캠퍼스 내에서 지역의 어르신들이 행복한 여가를 보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김승기 무주교육장, 저경력 교사 연수생·담당자 격려

무주교육지원청 김승기 교육장은 지난 14일 무주덕유산리조트에서 무주-장수 신규 및 저경력교사 연수에서 인사장과 함께 연수생들과 연수 운영 담당자들을 격려했다. 김 교육장은 신규교사와 저경력교사를 대상으로 도내에서 유일하게 1박 2일로 진행되는 연수인 만큼 서로 충분히 소통하여 '학생중심 미래교육'을 위한 네트워크를 만들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연수 기간에 아름다운 무주의 명소 덕유산에서 지역의 자연생태를 이해하고 힘의 가치를 체험할 것을 제안했다.

무주 신규 및 저경력교사 16명, 장수 신규교사 5명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연수는 전북교육청 10대 핵심과제인 미래교육과 수업혁신을 중심으로 덕유산 자연 생태 체험에 이르기까지 7개의 교과목을 다루었으며 이를 위해 도내 명강사 5명과 자연환경 해설사들이 연수에 협조했다. 무주교육지원청은 앞으로도 관내 교사는 물론이고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연수를 지속적으로 기획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익산 야생동물·조류보호협, 야생조류 보금자리 제공 앞장

익산시에서는 야생동물과 더불어 가는 생태환경 조성을 위해 지역 학교 주변에 새집 달아 주기 행사가 지난 18일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사)한국 야생동물 및 조류보호협회 익산시지부 소속 20여명이 참여해 전북대학교 익산캠퍼스, 이리초등학교, 익산교육지원청 인근 나무에 봄철 산란기 야생 조류의 서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한국 야생동물 및 조류보호협회 익산시지부는 십 수 년째로 야생조류의 산란기 보금자리를 위해 나무로 직접 만든 인공 새집을 매달아 주고 있다. 이 밖에도 야생동물 서식활동과 관련 관찰은 물론 치료가 필요한 야생동물을 구조해 치료 후 다시 자연으로 돌려

보내는 방식 활동에도 힘쓰고 있다. 또 겨울철 야생동물 먹이주기, 불법엽구(올무·창애·뽕그물) 제거, 야생동물 밀거래 방지에도 노력하고 있다. 이종로 익산시지부장은 "야생동물을 없는 지구에서 인간 또한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라며 "우리가 함께 공생해야 할 야생동물에 대해 깊은 관심은 물론 보호에도 함께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건강한 자연생태계 조성을 위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중요한 시점"이라며 "다양한 생태보존활동을 통해 지역 생태계 보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익산시-LX공사 익산지사, 공간정보 업무 연찬회

익산시와 한국국토정보공사 전북본부 공간사업처 및 익산지사는 지난 14일 LX공사 익산지사 대회의실에서 공간정보 업무 연찬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연찬회는 공간정보업무 공유 및 신사업 발굴을 위한 업무연찬 및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실질적 업무추진을 협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는 시 신청사 디지털트윈화 방안 설명과 기대 효과, 도로대강 전산화 및 자율주행관련 LX연구과제 소개, 주소정보관련 특고세 공모 지원 방안, 스마트스탠 3D디지털 플랫폼 구축사업 소개 등이 이뤄졌다. 또 국가스마트시티 적용방안 제시 등 상호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는 등 공간정보 업무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시 관계자는 "분기 1회로 정기적으로 연찬회를 시행해 공간정보 플랫폼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하겠다"며 "창의적인 협업 아이디어를 발굴할 기회로 삼고 시민들에게 공정하고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전북대병원, 'JBUH 2030 비전수립위원회' 발족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유희철)이 새로운 성장과 도약을 위한 비전 수립을 위해 JBUH 2030 비전수립위원회 발족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알렸다. 양종철 기획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로 의사직(13) 일반직(12), 실무위원(5) 등 총 31명으로 구성된 비전수립위원회는 병원의 성장과 도약을 위한 새로운 비전 수립의 추진 동력 역할을 하게 된다. 비전수립위원회에서는 앞으로 병원 현황을 진단하고 분석해 비전 수립 방향을 설정하며, 설정된 방향에 따른 비전(안)을 토대로 파트별 핵심 키워드를 선정해 슬로건과 비

전·핵심가치 등을 확정하는 등 새로운 비전 수립 과정에 참가한다. 비전수립위원회는 또한 새로운 비전에 맞춰 비전선포식과 비전수립관련 제반사항을 논의하며 향후 새로운 비전을 기반으로 병원의 미래 발전을 이끌 중장기 전략 등 과제 등을 도출해 나갈 예정이다. 양종철 비전수립위원장은 "변화하는 의료 환경에 대비하고 새로운 비전과 핵심가치를 수립해 병원의 미래 발전을 이끌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고창경찰, 청보리밭 축제 교통관리 만전

고창경찰서(서장 이석현)에서는 15일부터 개막되는 '제20회 고창 청보리밭 축제'의 안전한 교통관리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고창경찰서에 따르면 고창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올해에는 많은 관광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 불편함 없이 관람할 수 있도록 소분 위주의 교통관리를 시행하고 있다. 공음면 선동초 삼거리에서 행사장 입구와 씨앗등 사거리 등 주요 혼잡구간에 교통경찰을 배치하고 부분 통제구간과 차 없는 거리 등에는 축제 인력과 자율방범대를 배치하는 등 경찰 유관기관, 협력단체와 협력하여 축제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한, 축제기간 동안 교통사고 예방 및 원활한 교통소통을 지원하기 위해 교통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기전대, 다문화운동회·외국인 주민축제 공동 개최

전주기전대학(총장 조희천)은 지난 15~16일 이틀간 전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공동으로 2023년 다문화운동회 및 외국인 주민 축제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를 기념해 전주기전대학은 △풍산아트 △미용봉사 △행사 홍보물품을 지원하고, 전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문화 가족 구성원 간의 친밀감 증진과 외국인 주민들의 한국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한 △운동회 △장기자랑 △행운권 뽑기 △프로포즈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조희천 총장은 "전북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 교류를 위한 운동회를 본교에서 개최할 수 있음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행사가 지역사회 다문화가족과 외국인들의 친밀감 증진 및 문화교류의 장 확대에 이어질 희망하고, 앞으로도 국가 간 우호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호원대 씨름부, 전국대회 단체전 3위 입상

호원대학교 씨름부는 제24회 증평인삼배전국장사씨름대회에서 대학부 단체전 3위에 입상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르면 씨름부는 지난 15~16일 2일간 충북 증평종합스포츠클럽에서 열린 제24회 증평인삼배전국장사씨름대회에 참가해 대학부 단체전 3위를 차지했다. 이에 앞서 지난 제20회 호산김성룡장사배전국장사씨름대회에서 단체전 동메달을 획득한 바 있다. 호원대는 단체전 16장에서 울산대 4대 3 승리, 8강전에서 목원대 4대 3로 누르고 준결승에 진출했다. 운영진 감독(스포츠투도학과 교수)은 "두 대회 연속으로 단체전에 입상한 것은 칭찬 후 처음"이라며 "우리 학생들이 자랑스럽고 항상 저를 믿어 준 학생들에게 고맙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호원대학교 씨름부는 2018년 창단 후 28명의 재학생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선수를 육성하고 있다. /장은성 기자